

#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 대전환시대 연다

민선 8기 3주년



영타운·공공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 구축  
공약이행 평가SA…이행률 지역 평균 상회

민선 8기 영암군이 ‘혁신으로 도약하는 더 큰 영암’을 비전 삼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전환 시대를 열어 주목받고 있다.

29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군은 혁신을 가치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 혁신의 결실들이 하나둘 쌓여가며 지역사회에 체질을 개선하며 영암군민 삶의 질도 동시에 높여가고 있다.

특히 지역 협안 해결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 전남도를 아우르는 광폭 행보로 일궈낸 대표적 성과가 주목받고 있다. 2025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올 영(ALL YOUNG) 활기찬 영타운’과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호남명촌 구립르네상스’ 선정, 국책기관 마한역사문화센터와 월출산생태팀병원 유치 등은 전국에 회자됐다.

영암읍 교동리 도시개발사업 지구 2단7천267㎡ 부지에 들어설 영타운은 타운하우스 44세대, 커뮤니티 광장, 스마트 인프라가 집약된 명품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전 세대에 빗물저금통과 신재생에너지 발전도 적용돼 전국 대표 친환경 주거로 각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 영암군은 교동리에 들어설 다양한 시설들을 영암군민과 지역 안팎의 청년들이 영암에서 살아가며 활력을 불어넣을 인프라로 기능하도록 만든다는 방침이다.

총사업비 300억원의 호남명촌 구립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지난해 11월 ‘전남형 균형발전 300 프로젝트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것이다. 호남 3대 명촌으로 불렸던 구립마을의 명성을 되찾고, 전통문화유산이 살아 숨 쉬는 남도문화의 중심지로 만드는 프로젝트다.

영암군은 올해 행정절차 이행을 마치고 2026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해 한(韓)문화교육관, 한식 체험관, 구립르네상스관, 한옥호텔 등을 세운다. 구립 골목길 정비와 팝업 스토어 조성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영암군 최대 성과로 꼽히는 마한역사문화센터 건립도 순항 중이다. 센터는 삼호읍 나불면 2만9천478㎡ 부지에 국비 327억원이 투입돼 지상 2층 연면적 6천259㎡ 규모로 들어선다. 기록보관소, 문화재 전문도서·자료관, 연구·교육시설, 전시·체험관 등을 갖춘 종합문화공간으로 올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착공될 예정이다.

군서면 원인박사유적지 주변 7만5천138㎡부지에 설립될 월출산생태팀병원도 올해 착공한다.

영암군의 성취는 다양한 수상 실적에서도 드러난다. 10개 분야 120개 사업으로 구성된 민선 8기 영암군의 공약은 한국마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2025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를 받았다. 이 수상으로 영암군은 3년 연속 최고 등급에 선

정되는 금자탑을 쌓았다.

공약 이행도 차차 진행되고 있다. 영암군은 시니어클럽 설치 및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영암천 등 자연거도록 조성, 농기계 임대사업 기종 확대 등 36개 공약을 완료했고, 84개 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다. 2024년 말 기준, 68%에 달하는 영암군의 공약이행율은 전국 군 지역 평균 4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우승희(사진) 영암군수는 “지난 3년 영암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매 순간 영암이 나아갈 방향을 경청하고, 도전과 혁신으로 평범한 영암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며 “3년 전 초심을 잊지 않고 영암군 대표 일꾼으로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나동호 기자

## 목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병원 현장서 열린 첫 심의 ‘호응’

피해자 4명에 총 1천여만원 지원



목포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피해자 치료 현장에서 열린 제5차 심의회를 통해 4명에게 총 1천100여만원의 지원을 결정했다.

29일 목포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최근 피해자가 직접 치료 및 진료를 받고 있는 목포한국병원에서 제5차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회를 개최했다. <사진>

심의회에는 광영환 목포지점장을 비롯한 검찰 간부들이 배석한 가운데 심의회의 공정성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예방 관리 등 다양적 지원 방안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 6명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번 심의는 피해자를 직접 치료하고 진료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광영환 지점장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광영환 광주지점 목포지점장은 “병원과 보호 기관, 유관기관 간 통합 지원 체계를 더욱 충실히 구축해 피해자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고광일 목포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은 “범죄로 깊은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한줄기 빛이 돋치우고 회복을 돋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심의위원들에게 당부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일본 게이오 백화점 관계자들이 최근 해남군을 방문해 ‘해남미소’에서 판매 중인 관련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 <해남군 제공>

## 농수산물 쇼핑몰 ‘해남미소’, 日 진출 기대감 ‘솔솔’

게이오백화점 관계자 수출 협의자 방문

11월 온라인몰 입점 목표…사전 절차中

해남군 농수산식품의 일본 시장 진출이 현실화되면서 수출 활성화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9일 해남군에 따르면 관내 500여업체 1천200여 품목이 입점해 있는 군 직영 쇼핑몰인 ‘해남미소’와 연계한 일본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해 게이오 백화점 등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일본 온라인 시장 진출은 지난 3월 일본 소재 수출 대행사인 노아에서 해남미소에 관심을 가지고 게이오 백화점 등에 일본 수출을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게이오 백화점은 11개 지점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백화점으로 특히 도쿄내 신주쿠점은 연간

1천500만명의 고객이 찾는 일본 내 대표적인 백화점 중 하나다.

게이오 백화점과 노아 관계자는 최근 사흘간 해남을 찾아 관내 수출기업을 방문해 시설과 제품 생산과정을 살펴봤으며, 40여개 제품들의 설명을 직접 듣고 시식해 보는 품평회 시간을 가졌다.

일본 관계자들은 해남배추와 김을 사용해 만들어지는 김치와 김 가공시설을 방문, 청결은 물론 생산에서 가공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며 신뢰감과 만족감을 나타냈다.

또한 “품평회를 통해 K-푸드의 맛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한국 자체와 일본 기업이 상호 수출을 진행하는 사례는 처음 시도되는 이번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크며, 해남을 직접 와서 보고 느끼니 기대감이 확신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현영관 해남군수도 “군의 농수산식품은 어느 지역보다 그 맛과 품질이 우수하다고 자부하며, 앞으로 더 안전하고 고품질의 먹거리를 생산, 공급할 수 있도록 해남미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게이오 백화점과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해남군은 11월 게이오 백화점 온라인몰에 ‘해남미소 전용관’ 구축을 목표로 수출 참여 기업 선정 및 일본 후생성 사전 등록 절차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몰 오픈과 동시에 판촉행사를 진행해 해남의 먹거리를 일본 소비자에게 직접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일본 카드사 순위 2위인 세존 카드사와 함께 포인트몰을 진행하는 등 일본 시장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다방면에 걸쳐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해남=박필용 기자

## 함평읍 중앙길 확장공사 ‘속도’

내달 1일 임시 양방향 통행

함평군이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함평읍 중앙길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9일 함평군에 따르면 함평읍 최대 역점사업인 중앙길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가 속도를 내며, 오는 7월 1일부터 임시 양방향 통행을 시행할 예정이다.

함평읍 중앙길 일대는 폭이 좁은 일방통행로에 주정차 차량도 많아 도로 통행과 상가 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었다.

이에 함평군은 2023년부터 166억원의 군비를 투입해 중앙길(중로 2류 9호선) 구간 620m를 18m 폭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도시재생사업과 함평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추진되며 ▲왕복 2차선 도로 확장 ▲주차 구간 및 보도 신설 ▲

전선 지중화 ▲쿨링포그 도입 등 통행 환경과 도심 미관 등 정주 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재 나비어울림센터와 게스트하우스 조성이 완료됐으며, 함평읍사무소도 조성 중인 함평읍 어울림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경찰청도 중앙길 일대에 경찰서를 신축할 계획으로 중앙길 일대는 빠른 속도로 도시 발전 기반과 활력을 갖춰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군청 민원실부터 농협 함평군지부 까지 420m 구간 준공 전 주민 생활 편의 및 원활한 교통을 위해 아스콘 기종 포장을 완료했다.

함평군은 전선 지중화까지 완료되는 올해 말 까지 620m 전 구간 개통·양방향 통행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33년 만에 일방통행 해제 및 양방향 통행을 통해 중앙길이 침체를 극복하고 활기찬 중심지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 기자

## 영광도서관, 법의학자 이호 교수 강연 성료

인간 존엄성 인문학적 접근 ‘호응’

영광도서관은 “최근 학생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한 ‘영광 夜수다 인문학 강연’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법의학자 이호 교수를 초청해 ‘죽음과 주검, 그리고 반복되는 새로운’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강연자인 이호 교수는 현재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 대검찰청 법의학 자문위원, 경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살아있는 자들을 위한 죽음수업’, ‘타살의 흔적’이 있다. 또 ‘그것이 알고 싶다’, ‘알쓸인집’, ‘유 퀴즈 온 더 블록’ 등 다수의 방송에 출연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죽음을 둘러싼 공동체의 역할과 인간 존엄성에 대해 인문학적으로 접근해 호응을 얻었다.

강연에 참여한 한 학생은 “법의학자의 직업

세계와 더불어 공동체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해보는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조정희 관장은 “이번 강연이 삶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법의학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역량을 높여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영광도서관은 다음달 바이올리니스트 백진주를 초청해 ‘夜수다 인문학 강연’을 이어갈 예정이다.

/영광=김동규 기자



CYMK